

#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

하재성 교수

(Ph. D., 고려신학대학원)

## 국문초록

상담에 있어서의 역전이 감정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과 감정을 지칭하며, 그 존재에 대한 인식과 분별이 없을 때 자칫 상담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역전이는 내담자의 전이 감정을 이해하는 긍정적인 창문의 역할을 하지만, 아울러 상담자의 무분별한 표현으로 우려할만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역전이 감정은 사회문화적으로 변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적 환경이나 목회 상담의 환경에서도 역전이 감정은 나타나고 활성화될 수도 있다. 비록 모든 목회자가 역전이의 개념을 알고 사용하는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독교 영성의 자원을 바탕으로 역전이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다. 즉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적 성찰과 경건의 자료들, 즉 기도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내적 변화나 무의식적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경험에 따른 자신의 전인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영성의 자원을 가진 목회자나 상담자는 먼저 내면에 흐르는 역전이적 내용을 인식 혹은 인정하고, 그 내용의 자기 책임 및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자기 성찰과 영혼 유익을 위해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역전이가 기독교의 자기 성찰적 영성을 만나게 될 때 윤리적인 목회 상담과 케어를 기대할 수 있다.

중심단어 : 역전이, 영성, 전이, 환상, 자기 초월

## I. 여는 글

상담에 있어서의 역전이 감정이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무의식적 반응과 그에 따른 다양한 감정을 지칭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에게 투사하는 전이의 감정을 분별하고 치료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고 치료자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역전이의 감정은 전이 감정과는 달리 치료자에 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고, 상담의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면에서 더욱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담 현장에서의 전이적, 역전이적 감정의 개념이 목회나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 될 수 있는가? 프로이드와 달리 후대의 심리분석 학자들은 전이와 역전이의 사회문화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류학적 연구를 하는 이들조차도 한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의 역동을 설명할 때 전이와 역전이의 개념을 사용한다. 만일 그렇다면 역전이 감정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의 사역을 분석적으로 묘사해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개념이 될 것이다.

역전이는 내담자의 전이 감정을 이해하는 긍정적인 창문의 역할을 하지만, 아울러 목회자나 상담자의 무분별한 표현으로 우려할만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무의식 상태의 역전이 감정은 자칫 상담을 혼란과 파괴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목회적 환경에서도 역전이 감정은 나타나고 활성화될 수 있다. 그 예는 다양한 형태로 수도 없이 많이 목회 현장에서 실현되어 왔고, 그 때마다 많은 상처들을 남겼다.

그렇다면 역전이의 개념을 인식하고, 그 환상의 실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록 모든 목회자가 역전이의 개념을 알고 대처하는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독교 영성의 자원은 전통적으로 내면의 성찰을 통해 역전이와 같은 자료들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대처해 왔다. 즉 우주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적 성찰과 경건의 자료들 즉 기도과 말씀들을 통하여 자신의 내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혹 생길 수 있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자신의 문제 행동이나 신념을 관찰하고, 그 경험에 따른 자신

의 전인적 변화를 영적 자원들을 통해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역전이의 개념을 소개하고, 목회와 상담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역전이를 건강하게 인식 혹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을 억제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을 모색할 것이다. 진지한 기독교적 영성의 자원을 가진 목회자나 상담자는 먼저 내면에 흐르는 역전이적 내용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식 혹은 인정하고, 그 감정적 내용의 소속 즉 역전이의 감정은 자신의 책임 아래 소속된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아울러 영적 통찰력을 통한 자기 성찰은 다른 영혼 유익을 위해 필연적으로 윤리적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역전이가 기독교의 자기 성찰적 영성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현장에서의 건강하고 윤리적인 목회 상담과 케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펴는 글

### 1. 심리 치료와 역전이

상담에 있어서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란, 전이(transference)와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과장된 긍정 혹은 부정적 감정, 환상, 혹은 행동”이다.<sup>1)</sup> 이 개념은 심리분석의 창시자 프로이드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한 동안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 단계 개념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러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하여 가진 감정 혹은 태도를 지칭하기도 한다.

프로이드의 경험에 따르면 감정의 전이란, 자신에게 분석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환상이나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것들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매우 강렬한 형태를 가질 수도 있으며, 그것은 “생체적 타임머신”이라 부를 수 있다.<sup>2)</sup> 즉 이것은 상담의 상황에서 일정한 관계나 사건의 기억이 다시 살아 오르는 감정의 착오 현상이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옛 감정이 살아나기도 하고, 앞에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만의 정서가 때로 고집을 부리며 떠올라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sup>3)</sup>.

전이의 감정이 있는 한,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보고 싶어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담자의 고집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경험과 기대가 정해주는 틀에서만 상대방을 보고 싶어 한다.

전이가 내담자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역전이 역시 내담자와는 별도로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작 내담자에 대해 알기 전에 벌써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내담자에 대하여 짐작하고 있거나, 마치 내담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역전이가 나타난다.

전이나 역전이의 주요한 원인은 공통적으로 당사자 자신들에게 있는 충족되지 않은 감정과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혹 다른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유기 혹은 여러 종류의 학대(abuse)가 있었을 수도 있다. 거기에는 프로이드에 따르면 역전이란 상담자의 내면 구조에 대한 내담자의 도전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생기는 저항의 일종이기도 하다. 역전이의 긍정적 역할에 대하여 프로이드는, 분석가가 “자신의 수용적 기관과 같은 무의식을 환자의 무의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분석가의 무의식은 환자들의 무의식을 재건할 수 있다”<sup>4)</sup>고 말한다.

프로이드의 두 번째 긍정적 관점이 이후 대관계 이론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상담자의 주관성과 인격이 내담자의 무의식과 의식에 개입될 때 비로소 치유와 진전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sup>5)</sup> 비록 일부의 사람들은 전이나 역전이가 상담에 가상적인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전적으로 내담자들이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담자나 내담자 그 누구도 상담 관계에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치료 과정에 있어서 상담자의 인격이나 반응은 내담자의 치료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역전이의 개념이 치료에서의 전체적 과정, 혹은 존재론적 일부분으로서 본질화 되는 것이 현대 정신 분석의 추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감정전이의 시간착오적인 감정 투사 혹은 감정 표출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 주는 상담자의 전문가적인 수용과 분석과 그에 따른 치유를 지향한다. 하지만 감정 역전이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등장한다. 그 양상들 가운데는 게버드(Gabbard)의 지적과 같이, “평소와는 다

르게 매우 화를 내거나, 예외적으로 용서를 잘 해 주고, 다른 때와는 달리 따분함을 느끼며, 혹은 지나치게 엿보려는 의식” 등이 있는데, 그는 이것을 쉽게 말해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다”라는 경험이라 한다.”

특히 감정의 역전이 가운데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의 경우는 환자가 투사하는 학대자나 혹은 환자 자신이 경험한 학대의 희생자 역할 등의 투사가 워낙 강하여 상담자가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게버드는 지적한다. 그렇다고 모든 상담자들이 똑 같은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역전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상담자에게 이첩을 하는 것 역시 강렬한 역전이 감정을 다루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상담자가 역전이의 감정을 실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가 내담자를 만나는 것은 내담자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위니콧의 지적과 같이, “환자는 [전이적 감정으로] 치료자를 공격해야 하고, 치료자는 환자가 자신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공격을 이겨내야 한다.”<sup>8)</sup> 상담자는 전이의 심리적 전투 상황을 이겨냄으로써 내담자에게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가운데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치료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역전이적 감정을 인식시키거나 반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내담자가 자신이 투사하는 감정을 느끼도록 방치하거나 혹은 자신의 느낌을 알아 달라고 조를 수 없는 것은,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도움 받기 위해 왔고, 상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로이드는 상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위해 내담자의 애정의 표현을 현실적 관계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환자의 애정에 대한 요구와 상담 분석 관계에서의 요구는 환자 자신의 신경증적 요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속에 발생하는 역전이적 응답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역전이의 활성화를 막기 위해 프로이드는 상담자가 자신의 사생활이나 경험을 환자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자 역시 일정한 시간에 감독을 받고 분석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다.

게버드(Gabbard) 역시 치료자가 여성 환자에게 자신이 가진 성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상담이 더 이상 이성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환자로부터

터 자신의 성적 매력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는 진솔하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권한다.

당신의 질문은 상담자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은 성적 매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은 성적으로 매력적이라” 고 느낀다고 말하면, 당신은 이 상담이 이전에 기대하던 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sup>9)</sup>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상담자 자신의 역전이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보다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경험하기 쉬운 역전이의 감정을 깨버리는 다음의 몇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는 내담자의 이상화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담자의 구출자로서의 환상(rescue fantasies)이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불사르며, 지나치게 오래 혹은 자주 상담을 하거나, 전화하거나, 자신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형태다. 둘째는 상담자를 지루하여 잠들게 하는 종류의 역전이, 셋째는 내담자에 대한 성적 역전이, 그리고 넷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무기력의 역전이가 존재한다. 때로 성적 감정이 구출자 감정과 뒤바뀌는 이유는 구출자 감정이 훨씬 합법적이고 덜 수치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상담자가 강력한 전이적 요구 혹은 그에 부응하는 역전이적 충동이 있을 때,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보다는 건강한 상담을 위한 신중한 “아니오”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호간의 환상의 만족을 위해 몰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욱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릇된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0)</sup> 특히 내담자를 위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상담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 상담 자체를 위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 2. 역전이 개념의 확대

역전이의 개념은 애초 프로이드의 분석자와 분석대상자 사이의 관계 정의

로부터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왔다. 대상관계 이론학자인 위니컷(D. W. Winnicott)의 경우에는 안아주기(holding)의 개념에서 상담자가 역전이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권한다. 역전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비록 그것이 불편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역전이는 치료의 장애가 아니라 “분석이 되는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sup>11)</sup>

다른 한 편 위니컷은 역전이가 “환자를 마주 대하는 치료자의 행동에 있어서 전문가 의식 부재”로 문제 삼기도 하였다.<sup>12)</sup> 위니컷이 치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의 필요(needs)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용이다. 이런 발달에 있어 필요를 채워주는 일과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서로 구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치료자들의 비전문적인 행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위니컷의 지적 가운데 역전이의 긍정적 측면이 다소 생략된 면이 있지만, 위니컷은 환자의 회복을 위한 치료자의 자기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고 있다.

자기 심리학자 하인즈 코헷(Heinz Kohut)은 감정의 전이가 프로이드의 주장처럼 “무의식과 전의식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분석가와 내담자(analysand)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한다.<sup>13)</sup> 이미 프로이드가 지적한 말의 실수나 상담자에 대한 꿈 역시 감정 전이의 일부라고 코헷은 말함으로써, 그가 전통적 분석학의 입장에서 감정의 전이의 유용함을 강조한다. 다만 자기(self)와 자기대상(selfobject)의 관계 속에서 “내적 성찰과 공감을 통해”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4)</sup>

특히 내담자의 감정적 전이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하여 코헷은 “개방적인 마음”(open-mindedness)을 중요한 요소로 요구한다. 그가 개방적 마음이라는 뜻은 상담자가 “견고하게 굳어진 상담자 자신의 이론적 사전 지식에 따라 환자에 대한 이해를 짜 맞추려는 유혹을 저항해야 한다.”<sup>15)</sup> 상담자가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관없이 상담자의 성숙한 자기대상에 내담자가 공감적으로 접촉할 때, 비로소 심리분석학적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코헷에게 있어서 상담자는 두 가지 종류의 감정의 전이를 경험한다. 첫째는 거울(mirror)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이상

화(idealizing)에 대한 것이다. 유아기에 해결되지 못한 거울의 감정적 전이를 투사하는 사람에게 상담자는 유아기적 과대한 자기에적 요구(grandiosity)에 대해 적절히 칭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상화적 전이의 상태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칭찬해야 하는 필요를 인내해야” 한다.<sup>16)</sup>

무엇보다도 이 논문과 관련하여 코헛이 주는 중요한 통찰력 가운데 하나는 감정의 전이가 가진 사회 심리학적 해석의 무해성이다. 물론 코헛의 심리학에서 사회문화적 적용성에 대해서 지극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코헛 자신이 심리 분석적 용어가 임상 치료적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의 전이에 관한 한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유익한 용도가 과학적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다면 심리분석에서 사회심리학적 의미로의 전환은 충분히 무해한 것이다.”<sup>17)</sup>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사회 심리학적 영역 가운데, 목회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의 환경에서는 물론이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나는 환경에까지 전이와 역전이의 감정은 충분히 광범위한 의미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인종간 관계에서도 사회적, 인류학적 의미에서의 감정 전이가 발생하는 것을 코마스-디아즈와 제이콥슨(Comas-Diaz and Jacobsen, 1991)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전이 발생의 징조들 가운데는 “지나친 도움이나 친절, 인종과 문화에 대한 부인, 양가감정, 임상 인류학, 죄책감, 연민, 그리고 공격성” 등이 있다.<sup>18)</sup> 물론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소수인종에 속한 상담자와 다수 인종에 속하는 내담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인종간의 접촉에 있어서 독특한 양상의 감정 전이가 나타나는 것을 심리 역동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대개의 차별은 상대방의 색깔이나 인종을 잘 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곧 심리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감정전이의 형태다. 정작 상대 인종에 속한 사람이 가진 개개인의 특성과 인격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그 인종에 대하여 가진 선입견이 그 개개인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환상을 가지는 것 자체가 감정전이의 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이처럼 심리분석학적 개념의 역전이가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인관계나 사회적 만

남에 있어서 “감정의 전이 현상은 곧 어린 시절 가정의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규정지어진다.”<sup>19)</sup> 자신이 경험한 가정에서의 관계와 역할 분담,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경험이 곧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 같은 이론적 근거들을 기초로 전이와 역전이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목회 상담과 목회 현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목회 현장에서의 역전이 경험

일반적으로 목회 상담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솔직한 자기 성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일상에서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그런 감정의 변화에 대하여 편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목회 상담에 있어서 감정은 “영혼에 이르는 단어와 수단을 공급한다.”<sup>20)</sup> 감정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의 가장 중심적 가치와 내용에 이를 수 있다.

목회 상담은 내담자 자신이 가진 감정의 보호막을 걷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보호막을 제거하고, 자신의 우선순위, 필요, 애착, 자원, 그리고 약점을 실험적으로 발견해 간다.”<sup>21)</sup>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교회적 영혼 돌봄의 환경에 대한 신뢰가 곧 감정을 함께 나누는 목회 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자 혹은 목회자는 사실과 사건에 대한 궁금증 보다는 표현되거나 감추어진 감정의 내용들에 훨씬 중점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상담자는 역전이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되 내담자에게 표현하지 말아야 하며, 진솔하게 인지하되 공개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내담자를 만나면서 역전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투사의 내용들은 전적으로 상담자에게 속한 것이다. 전이의 내용이 내담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역전이의 내용은 전적으로 상담자 혹은 목회자 자신에게 귀속된다. 비록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목회자가 어느 성도에 대하여 첫 눈에 사랑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느끼는 사람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결코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함께 느끼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담자나 목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역전이적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고 무시

해버리는 것이다. 전이의 감정은 상담자가 통제할 수 있지만, 역전이의 감정은 무고한 내담자 혹은 성도에 대하여 상담자와 목회자가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다는 면에서 다르다. 사적 감정과 상담자 속에 있는 역전이의 내용이 현실적 관계 속에서 실현을 추구하려 할 때, 이것은 목회자에게 심각한 권력남용으로 변이된다. 이것이 역전이가 가진 상담 관계, 목회적 관계 속에서의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담자들은 역전이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리고,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인식하지만, 당연히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전이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역전이의 감정은 일단 상담자나 목회자 자신이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경우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자신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 가운데 상대방이 주입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역전이의 감정과 그 내용들은 상담자 스스로에 의해 반드시 인식되고,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경험하는 역전이 감정은 성도를 면담, 상담, 혹은 심방할 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목회자의 내면적 감정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언어적 소통 이전에 상호 주관적인 감정의 교류가 벌써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의 무의식적 행동으로, 혹은 지나치는 자동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회자의 감정의 역전이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느끼는 역전이의 감정은 단순히 목회자 내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격적 교제 가운데, 성도가 목회자에게 주입하는 감정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런 무의식적, 혹은 전의식적 감정에 대하여 목회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정한 성도를 향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느낌, 옷을 고르고 입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sup>20)</sup>

이와 같은 행동은 역전이가 가지는 파괴적 성격들을 그대로 닮아 있다. 그 무의식적 역전이적 행동들 가운데는 “내담자와 마음을 합하여 일정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내담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것-그리고 모든 종류의 지나친 행동들(예를 들면 약속시간을 잊어버리고, 경계선을 분명히 세우지 않고, 성적 관계로 발전하고), [상담 도중

잠에 들거나, 사회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런 예들은 목회자의 사역 현장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목회자 감정의 경험들이다.

역전이 감정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는 분명하고, 경계선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성도를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분별하되, 그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을 상대 성도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은 목회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목회자에 대하여 기대하는 성도의 안전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다. 성도의 감정 전이와 목회자의 감정 역전이는 인식하고 치유하는 도구와 창이 되지만, 목회자의 역전이 감정은 인식하고 분별하되, 때로는 목회자 자신이 자신의 멘토와 더불어 심각하게 함께 다루어야 할 데이터와 같다. 내담자의 치료에 대한 필요는 윤리적으로 인정되지만, 상담자가 내담자를 경유하면서 자신의 치유 혹은 자신의 필요 충족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만일 역전이가 인식되지 않고, 필요한 수단들에 의해 그 실현에 방해 받지 않는다면 역전이는 치료와 관계, 심지어 상담이나 목회 사역 자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역전이 역시 상담자 혹은 목회자의 채워지지 않고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감정적 결핍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과거의 결핍을 현재의 관계에서 치료받는 것이 내담자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결핍을 치유 받으려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담이나 치유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비윤리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목회자의 역전이 감정은 설교를 통해서 표출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청중들에 대한 반말 설교의 배경을 살펴보면 설교자들의 독특한 열등감이나 내면적 결핍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결핍의 치료 없이 그대로 표출되는 설교는 “설교자로서의 권력 남용이며 사머니즘적으로 청중을 제압하는 그릇된 형태의 설교”이며, “진리 선포의 권위를 심각하게 남용하는 윤리 위반이다.”<sup>23)</sup> 그 외에도 성도 개인과의 상담 내용을 허락 없이 노출하거나, 성적 상상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절제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 합한 것이라기보다는 설교자 자신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 바바리맨의 심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이의 사랑에 대하여”(On Transference Love, 1915)를 기록한 프로이드는 분석되지 않은 역전이가 치료 과정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남성 분석가와 여성 내담자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비록 서로 원하는 사랑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석가의 무의식적 내용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소원들에 대한 희망이나 서로의 환상이나 행동을 만족시키는 일을 거절하는 것이 자기 지식의 개발과 환자 인격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sup>24)</sup> 바른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윤리적 이유에서도 역전이는 반드시 방해 받아야 한다.

목회자에게서 성도들에 대한 역전이의 감정이 인식되지 않거나 통제 받지 않는 경우 이것은 강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스토킹이나 권력남용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환상과 현실, 혹은 무의식 속의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대기는 커서 목회자의 경우에는 사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목회자가 교회내의 이성의 구성원을 유혹하고, 사적인 관계로 발전할 경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특정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일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역전이의 영향임을 보여 준다. 특정인에 대한 꿈을 꾸는 무의식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현실에서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말이나 약속을 하는 등 기본적인 태도가 다르다. 어느 이성에 대한 가슴 두근거림의 경험이나 특별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이미 목회자의 마음에 역전이가 있음을 알게 해 준다.

#### 4. 기독교 영성과 역전이

최근 영성 신학(Spiritual Theology)이라 부르는 영성의 영역에 대하여 “다른 [새로운] 신학적 분야나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영적 학습에 대한 적용”이라고 본다면,<sup>25)</sup> 결국 기독교적 영성은 기도 및 묵상의 생활을 통해 신학의 실천적 이상인 성화와 도덕적 성숙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예를 들어 중세기의 외형적 의식과 경건의 표지들은 종교개혁과 청교도에 의해 “금식, 기도, 성경읽기, 안식일 지키기, 설교 듣기, 성찬, 가난한 자 구제, 경건한 일의 훈련,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의식적 주목(self-conscious attention)”이 포함된다.<sup>26)</sup>

한 편 영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중보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앎”

이라 말한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날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내향적, 인격적, 그리고 주관적인 필수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sup>27)</sup> 동시에 영성이라는 말 보다는 경건(piety)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하는 개혁 신학의 전통에서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설명할 때, 개혁 신학은 특별히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은 불신을 보이”면서,<sup>28)</sup> 성경 계시의 충분성에 대한 강조와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실 내적 통제력이나 말씀 중심적 경건,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의심 혹은 불신 등은 역전이의 역동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조절하는데 있어서 목회자와 상담자에게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하는 영성의 일부이다. 역전이의 사용에 있어서 목회자, 혹은 목회 상담자가 가질 “효과적인 사용의 핵심은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 성숙(maturity), 그리고 목회자의 도덕적 통합성(moral integrity)이다.”<sup>29)</sup> 따라서 역전이의 감정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인식하며, 그 감정이 목회적 관계 속에 실현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데 있어 목회자 및 목회 상담자의 영성의 역할은 영혼 돌봄 사역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 a. 역전이적 감정 존재의 인정

영적 차원에서 목회자나 상담자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역전이적 감정을 분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역전이적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록이나 성결에 대한 강박 관념적 태도나, 율법주의나 바리새 주의적 완벽주의는 오히려 목회자나 상담자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역전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강박적 태도의 소유자들은 타인의 성적 부도덕을 소리 높여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 속에 해결하지 못한 성적 부적응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애써 억누르고 망각하려 한다. 문제는 그런 율법 주의적 영성 내지 인격질환적 자기표현이 유일한 신앙의 방법이라고 고집하는 소통불능의 태도이다.

대개 상담자나 목회자의 경우 역전이적 감정을 부인하거나 억압해 버리는 이유는 그것이 바람직한 감정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 감정이지만,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한 감정이 살아있는 경우도 분명하다. 따라서 부인과 억압(repression)만으

로 역전이 감정의 존재를 무시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 그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주며,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율법 주의적 강박과 그에 대한 사단의 시험이 있다면 차라리 죄를 지으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루터는 필립 멜랑흐톤(Phillip Melancthon)에게 보낸 글에서, “담대히 죄를 지으라”(Sin boldly)고 권면한다.<sup>30)</sup>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전이 이 문구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만, 루터의 권면은 매우 분명하다. 자신이 율법 주의적 구교의 체제 안에서 박탈당한 양심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만큼 강박관념과 자기 완벽주의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마교의 결혼 금지와 관련하여 루터는 사제들이 “서품 당시 사단의 결혼 금지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과감하게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1)</sup> 루터의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적절하게 번역하자면 기독교인의 내면에 있는 전이와 역전이의 존재를 강박적으로 제거 내지 억압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 더 집착하게 하는 어리석은 노력이란 뜻이다. “성화가 없이는 칭의도 없다”고 할 만큼 영적 성숙의 과정은 루터에게 중요한 것이었다.<sup>32)</sup>

특히 나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때를 경계하는 루터의 유명한 말은 여러 문학자, 신학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통찰력을 주고 있다.

모든 것이 하늘의 권세 안에 있다-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우리 자신을 섬길지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세가 머리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에 등지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악한 행동들을 낳을 수 있는 등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sup>33)</sup>

영혼을 돌보는 사역 가운데 목회자나 목회 상담자는 텅 빈 객관의 상태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성과 성도 혹은 내담자의 감정적 전이에 대한 역전이적 감정의 상태에서 사람을 만난다.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목회자 내면의 심리역동은 수많은 경우의 감정의 스펙트럼을 낳는다. 그 가

운데 혼합되어 발생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역전이 감정에 대해, 영성은 그 생각과 무의식의 감정조차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인정하게 한다. 영적 자원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역전이가 자신에 대하여 갖는 의미-즉 해소되지 않은 자신의 발달상의 갈등, 감정적 결핍, 중요한 관계, 그리고 도덕적, 종교적 가치들-을 정직하게 탐구(exploration)” 할 수 있어야 한다.<sup>34)</sup> 이런 혼란된 자기 성찰의 영성을 통해 비로소 해로운 역전이의 행동화를 막게 하는 도덕적 억제력을 갖게 된다.

### b. 역전이의 자기 귀속과 책임감

자기 성찰이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요소라면, 역전이의 감정을 분별하여,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목회자 혹은 상담자 자신의 내적 역동을 감찰하는 행동이 목회 사역에서 뒤따르게 된다. 비록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목회자, 혹은 목회 상담자 자신이 다루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이것을 인정하기 힘들 때, 혹은 역전이의 감정이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비난을 받을 때, 자칫 당사자는 전이의 감정을 가진 성도 혹은 내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는 비난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세기에 여성들에 대한 신학적, 대중적 미움(misogyny)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죄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육체적 정욕에 탐닉하고, 비밀을 지킬 줄 모르며, 탐욕하고, 사치스런 옷을 좋아하며, 그로 인해 여성들은 평생 그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성과의 섹스는 결혼 관계 안에서도 죄로 치부되었다.<sup>35)</sup> 수도원적 생활과 금욕적 생활을 수행하는 것만이 마리아의 본을 따르는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존재를 육체에 종속된 존재라 여기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정당한 신학적, 혹은 철학적 평가라기보다는, 은둔하면서도 불타는 정욕을 가진 남성 자신들의 심리적 욕구를 여성에게 투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신학화 한 것이 중세의 여성에 대한 비인격적 신학이며, 많은 여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한 것의 근원에는, 정작 성경이 아닌, 성경을 경유한 남성들의 집단적 심리투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로저스(Rogers)의 주장은 명쾌하다.

그리고 동시에 [초기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은 문학]들은 여성의 성적 기능을 비하하였고, 여성을 오직 성적인 존재로, 그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격하시켰다...[그들은] 일반적으로 가정하기를 남자는 여자를 오직 성적 욕구에서만 바라볼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을 유혹하는 자로 보았다. 성에 관한 이처럼 지나친 [남성들의] 편견은 당연히 자신들의 육체적 본성을 억제하려는 간접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성에 대한 자신들의 깊은 죄책감은 금지된 성적 욕구를 여성들에게 투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투사로 인해 [그들은] 여성들이 특별히 관능적인 존재이며 특별히 죄가 많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여성들과의 연합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계를 강화해 왔다. [이처럼] 여성성(femininity)이 성(sexuality)과 동일시되고, 성이 죄와 동일시되면, 여성은 자연히 저급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며, 자신의 연약함이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sup>36)</sup>

결국 전통적 여성 혐오의 근저에는 남성 자신들의 욕구를 여성들에게 투사한 집단적, 사회 문화적 몰이해의 암흑이 있었다. 문제는 이런 투사, 비난, 책임 전가의 모습이 남성 목회자 혹은 남성 목회상담자들에 의해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목회적 환경에서의 역전이의 피해자들은 권세를 가진 목회자의 수치심과 투사, 그리고 비난으로 말미암아 희생자인 여성들이 오히려 유혹하는 자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수 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 이미 교회 안에서 세워진 위계질서의 지도자 위치와 권위가 있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존중하는 일부 성도들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목회자나 상담자의 역전이의 피해자들은 때로 하소연할 곳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정작 상호간의 환상을 만족시키려 했던 목회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비난만 남긴 채 빠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변명을 위해 희생자의 도덕적 불결을 비난하지만, 정작 목회자 혹은 상담자는 자신 속에 있었던 역전이를 행동하려 했다는 양심의 수치심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전이의 환상과 그에 대한 추구는 전적으로 역전이의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려 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 c. 영적 자원과 윤리적 선택

이미 성경의 여러 이야기와 교훈들 가운데서도 이런 목회적 형태의 역전이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역전이적 기대의 예는 선지자 사무엘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미래의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 큰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sup>37)</sup>라고 감탄하였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분명하다. 엘리압은 용모가 뛰어나고 신장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엘리압을 버리셨다 하신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처음 보고 왕의 재목이라 판단한 때는 사무엘 자신의 감정적 역전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고, 용모가 출중하여 다른 사람 보다 어깨 위나 더했던 사울 왕에 대한 그의 기억 때문이었다. 그러나, 엘리압의 외모에 대한 사무엘 내면의 감탄은 곧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메시지에 의해 중단되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가진 환상적 기대와 평가에 대하여 사람의 관점과 신적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감정적 역전이의 현상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떻게 방해 받아야 하는지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다. 전이와 역전이의 감정이 함께 지속되는 교회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권한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며 인도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이라고 말한다.<sup>38)</sup>

이어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부자들은 실상 사람들을 압제하는 자들이며,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자들이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인해 성도들조차도 역전이적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상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자들에 대한 환상을 가진 성도들과 그 대접을 받는 부자들 사이에 서로의 기대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그런 기대와 환상은 방해 받아야 하고, 특별히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신적 윤리와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신구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의 판단은 매우 실제적이었고, 일상적 역전이의 차별이 거두어진 것이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에 등장하는 한 과부의 두 렷돈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역전이에서의 자유와 공감적 칭찬을 볼 수 있다. 당시 성전의 궤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부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과부 한 사람에게 대하여 언급하신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강조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sup>39)</sup>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서 우려하는 외모에 의한 판단의 역전이로부터 예수는 자유롭고, 오히려 개별적인 가난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 실제적 지식 가운데 공감하고, 그녀의 큰 결단과 헌신에 대하여 을 하고 계신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와 목회 상담자의 역전이에 대한 자기 성찰과 정직한 자기 교정을 위하여 말씀과 경건의 영적 자원들은 반드시 재고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통적 신학 자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는 달리, 기독교적 영성과 그 자원은 목회자의 역전이적 감정에 대한 분별과 투쟁, 성도나 내담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상처 받은 영혼에게 더 상처를 입히거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 없이, 목회자와 목회 상담자의 자기 절제와 변화를 통해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 재건의 사역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역전이의 감정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견제되고 방해 받아야 한다. 자칫 목회자의 역전이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나 내담자의 감정 전이의 발전을 차단하기 위해 목회자는 사무실에 가족사진을 비치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다. 현실의 여러 요소들, 사역과 미래와 자칫 망가질 수 있는 가족관계까지 고려하며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도 환상을 깨뜨리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더욱 현실적 효과를 위해 목회자나 상담자는 자신을 위한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교제와 상담을 하는 것이 역전이의 활성화를 막고, 영적 양심을 지속해 가는 일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특성상 자기분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그 가운데

데는 담임 목회자에 집중된 교회 권력과 스스로의 권위주의,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자나 감독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역전이에 대한 분별과 통제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제도적 장치 대신 거의 많은 상황에서 개인의 경건과 영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상적 상황에서 목회자 혹은 상담자는 자신을 위한 “상담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강박적인 감정들과 환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sup>40)</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성이 초자연적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 교제, 이를 통한 자기 성찰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나 상담자가 영적 성찰 가운데 내면의 역전이 감정과 자동화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감독하고, 역전이 감정의 행동화(enactment)를 차단해야 한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역전이 감정에 대한 실천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데만 익숙한 목회자나 상담자의 경우, 철저하지 않은 영성과 자기 성찰은 여전히 자기 합리화와 변명의 도구로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말씀의 가르침과 건강한 기도는 심리 상담에서 자기분석 요구(self-analysis)에 대한 적절한 영적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욕구가 무엇이며 왜 생기는지 근본적으로 자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언어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이 행위 자체는 역전이 감정을 억제하려는 최선의 노력 가운데 하나다. 개혁 신학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과 그리스도의 주권적 주 되심 역시 목회자 혹은 상담자의 판단과 행동, 그리고 자신의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적 자원이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와 함께 가까운 동료나 멘토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외에 신속하게 전문가나 신뢰할만한 동역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때라 하면 목회자나 상담자들은 역전이의 감정을 만족하거나 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경우가 그렇다. 목회자들의 경우, 자신의 역전이의 환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일방적으로 오용할 때가 있다. 전문 상담자들의 경우, 역전이의 감정이 있을 때, 내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담 회기를 지속하려 한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역전이적 이유들, 즉 자신의 상담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내담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도 있다.

이 문제에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관계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만일 상담자가 자신의 느낌을 내담자가 함께 느끼는 경험으로 착각하여, 그 환상적 역전이 현상을 현실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면, 그것은 곧 영적, 신학적으로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억제 혹은 감소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sup>41)</sup>

영성이라는 말이 “종교 기관이나 공식적인 신학적 교리보다는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종교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sup>42)</sup> 건강한 목회자 혹은 목회 상담자는 자기 개인의 심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인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강력한 역전이 감정의 분별과 통제를 위한 영성의 역할은 무의미한 형식에 불과하다. 라인홀드 니버의 지적과 같이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가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죄를 짓고 있”지만,<sup>43)</sup> 최소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초월(self-transcendence)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그 믿음이 악한 자기주장(sinful self-assertion)에 대해 [생기는] 불안을 씻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44)</sup>

### Ⅲ. 닫는 글

전통적 기독교 영성은 심리분석 이론이 구체화한 목회자나 목회 상담자의 역전이 감정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한 관계로 초월 혹은 승화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영성은 영혼 돌봄에 대한 윤리적 규범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적 갈등과 미해결된 문제들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건강한 영성의 바탕을 가진 목회자 혹은 상담자는 역전이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인하기보다 솔직하게 인식한다. 역전이는 단순히 상담 관계에서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혼을 돌보는 목회 사역과, 나아가 청중들을 향해 외치는 설교 가운데서도 물어날 수 있다. 목회자는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자로서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분별없이 표현하거나, 자신의 미해결된 문

제를 해결 받으려 할 수 없다. 하지만, 영적 관계와 종교적 체험을 전제로 하는 영성은 이런 영혼 돌봄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초월적 관계 속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다.

역전이의 감정이 제어되지 않을 때 어려운 점은 목회자나 상담자에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권위와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다. 전이 감정은 상담자가 이해를 하고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지만, 역전이 감정은 목회자나 상담자가 스스로 깨닫고 통제하지 않으면 해로운 현실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한 상담이나 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독교적 영성은 목회자로 하여금 역전이의 감정이 있음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적 내용의 원천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통찰하게 한다. 아울러, 그 감정들이 통제되지 않고 표현될 경우 생길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이 성도의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가능성도 생각하며, 영혼의 유익을 위해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

상담과 목회 사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들 가운데 특히 역전이의 환상은 사역자 내부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위험이다. 이를 분별하고 대처하여 목회와 상담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목회자의 영성을 통한 자기 분별과 성찰은 필수적이다. 사역자의 자기 이해와 성숙을 지향하고,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영성이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일어나는 목회자와 상담자의 내부적 도전인 역전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통적이고 강력한 영적 자원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변상규. “전이와 역전이.” 『가정과 상담』 127호 (2008), 30-39.
- Adleman, Jeanne & Gloria, M. & Enguidanos, Clark & Gloria, Enguidanos. *Racism in the Lives of Women: Testimony, Theory, and Guides to Antiracist Practice*. New York: Haworth Press, 1995.
- Barbour, Ian G. *Religion and Scienc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ssues*. San Francisco: Harper, 1997.
- Comas, Diaz L. and F. Jacobsen. “Ethnocultural transference and the countertransference in the therapeutic dya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392-402. in Lisa V. Blitz, Mary Pender, Greene. *Racism and Racial Identity*. New York: Haworth Press, 2006.
- Dittes, James. *Pastoral Counseling: the Basics*. Louisville, KY: WJK, 1999.
- Gabbard, Glen O. *Long-Term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 Basic Text*.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ub., 2004.
- Hunter, Rodney.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0.
- Kohut, Heinz.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48.
- Maas, Robin & Gabriel, O'Donnell. *Spiritual Traditions for the Contemporary Churc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 Marcus, Paul, & Alan, Rosenberg (eds.). *Psychoanalytic Versions of Human Condition: Philosophies of Life and their Impact on Practice*. New York: NYU Press, 1998.
- Masterson, James F. 『참자기』, 임혜련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 Niebuhr, Reinhold.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1. in Don Browning. *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 A Critical Conversation in the Theology of Culture*. Philadelphia: Fortress, 1987.
- Rogers, Katherine M. *Troublesome Helpmate: A History of Misogyny in Literature*.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6.

Tobin, David L.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nd Binge Eating," in *Binge Eating*.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Tolstoy, Leo & Maureen, Cote. *Leo Tolstoy: Path of Life*. Nova Publishers, 2002.

---

### [ 후주 ]

- 1) R. G. Bruehl, "Countertransference," in ed. Rodney Hunter,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이하 DPCC) (Nashville: Abingdon, 1990), 239.
- 2) Michael Conner, "Transference: Are you a biological time machine?", *The Source* (June, 2001), <http://www.crisiscounseling.com/Articles/Transference.htm>
- 3) 정신의학자이자 저술가인 글렌 게버드(Glenn Gabbard)는 프로이드의 정의 즉 미해결된 분석가의 갈등이라는 역전이의 정의가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역전이란 단순히 상담자 혼자만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작품이며, 상담자의 참여와 내담자의 주입이 함께 섞여있는 혼합의 상태로 넓은 의미의 역전이를 정의한다. Glen O. Gabbard, *Long-Term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 Basic Tex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2004), 132.
- 4) Freud, "Recommendations for Physicians Practicing Psychoanalysis," SE 12(1912), 115-116, in *DPCC*, 240.
- 5) Fromm-Reichmann과 Winnicott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역전이의 긍정적인 사용에 동의를 하였다. 다만 이들 학자들 역시 역전이의 부주의한 사용을 경계하면서, 상담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권고한다. *DPCC*, 240.
- 6) James F. Masterson, 『참자기』, 임혜련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15; 변상규, "전이와 역전이", 『가정과 상담』 127호 (2008.8), 31, 에서 참조.
- 7) Gabbard, *Long-Term Psychodynamic Psychotherapy*, 136. 이외에도 무의식적 차원에서 상담시간을 놓쳐버린다거나 전화답신을 하지 않고, 환자들이 이야기할 때 주먹을 불끈 쥐거나, 그 환자를 만날 때 특별히 옷차림에 신경 쓰고 있는 행동 등이 무의식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행동 등이 있다.

- 8) Gabbard, 138.
- 9) Gabbard, 142.
- 10) Gabbard, 142.
- 11) 변상규, 33.
- 12) D. W. Winnicott, 1965, 159-61. Quoted in Gerald J. Gargiulo, "D. W. Winnicott's Psychological Playground", in Paul Marcus, Alan Rosenberg (eds.), *Psychoanalytic Versions of Human Condition: Philosophies of Life and their Impact on Practice* (NYU Press, 1998), 149.
- 13)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51.
- 14) Kohut, 51.
- 15) Kohut, 67
- 16) David L. Tobin,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nd Binge Eating", in Christopher G. Fairburn, G. Terence Wilson (eds.), *Binge Eating*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298.
- 17) Kohut, 51.
- 18) Comas-Diaz, L. and F. Jacobsen, "Ethnocultural transference and the countertransference in the therapeutic dya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392-402, in Lisa V. Blitz, Mary Pender Greene, *Racism and Racial Identity* (New York: Haworth Press, 2006), 223. 여기서 말하는 임상 인류학을 가리켜 설명하기를,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호기심을 말한다고 한다. 다른 인종에 대하여 과도한 호기심이 이와 같은 문화적 전이감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19) Jeanne Adleman, Gloria M. Enguidanos-Clark, & Gloria Enguidanos, *Racism in the Lives of Women: Testimony, Theory, and Guides to Antiracist Practice* (New York: Haworth Press), 1995, 362.
- 20) James Dittes, *Pastoral Counseling: the Basics* (Louisville, KY: WJK, 1999), 100.
- 21) Dittes, *Pastoral Counseling*, 101.
- 22) 목회자의 역전이 징조에 대하여 오성춘은 E. Mansell Pattison을 인용하여 다음의 징조들을 이야기한다. 약속을 지키는데 소홀함 특정한 교인에게 반복적 사랑을 느끼거나 적대감정을 느낌 대화 도중 지루하고 잠이 오며 집중이 되지 않음 교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교인간의 갈등에 성급히 편을 들 자기의 걱정을 성급하게 이야기함 특정한 교인의 꿈을 꿈 일정한 교인의 필요는 오직 자신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 한 그룹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과만 대화함 특정 교인과 특별한 약속을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것 등이다. 변상규, 34.

- 23) 하재성, “목회 상담과 설교: 21세기 설교와 목회 상담의 관계,” 『헤르메네이아투데이』, 제43호(2008년 여름), 57.
- 24) DPCC, i “Countertransference”, 239.
- 25) M. Thornton, “Spiritual theology and pastoral care”, *DPCC*, 1218.
- 26) J. Carmody, “Spirituality (Protestant)”, *DPCC*, 1222.
- 27) Robin Maas & Gabriel O'Donnell, *Spiritual Traditions for the Contemporary Churc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147.
- 28) Maas & O'Donnell, *Spiritual Tradition*, 207.
- 29) *DPCC*, 241.
- 30) Martin Luther, *Luther's Works*, 48:281.
- 31) *Luther's Work*, 48: 277.
- 32) Eric W. Gritsch and Robert W. Jenson, *Lutheranism: The Theological Movement and Its Confessional Writings* (Philadelphia: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1976), 139.
- 33) Leo Tolstoy and Maureen Cote, *Leo Tolstoy: Path of Life* (Nova Publishers, 2002), 229.
- 34) Bruehl, “Countertransference”, *DPCC*, 240.
- 35) Katherine M. Rogers는 자신의 저서 *Troublesome Helpmate: A History of Misogyny in Literatu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6)에서, 신학자 Thomas Aquinas조차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 36) Rogers, *Helpmate*, 22.
- 37) 사무엘상 16:6
- 38) 야고보서 2:2-4.
- 39) 누가복음 21:3
- 40) Bruehl, Countertransference, *DPCC*, 240.
- 41) M. Thornton, “Spiritual Direction, History and Traditions of”, *DPCC*, 1210.

- 42) Ian G. Barbour, *Religion and Scienc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ssues* (San Francisco: Harper, 1997), 95.
- 43)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1), 1:182; Don Browning, *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 A Critical Conversation in the Theology of Culture* (Philadelphia: Fortress, 1987), 54. 에서 재인용.
- 44)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1:182-83.

**【Abstract】**

Countertransference in Pastoral Care and Resources  
of Christian Spirituality

Jaesung Ha

(Ph. D., Korea Theological Seminary)

Countertransference includes counselor's unconscious feelings, fantasies, and often exaggerated responses toward the client due to unresolved issues within the counselor. Like with transference, the presence of countertransference is an important sign of personal involvement of the counselor with the client. However, without acknowledgement of its presence or of its meanings, countertransference may endanger the counseling relationship of trust that facilitates process of healing. Countertransference may also explain interpersonal dynamics of pastoral relationship in ministry. It deepens pastor's mutual self-understanding in ministry and signals for professional help when it seriously threatens pastoral relationship. Christian spirituality can help the pastor illuminate the contents of countertransference and its background; it provides resources for the understanding and transcendence of the self's unresolved needs in the face of the client. Christian spirituality provides plenary religious resources for self-reflection, transformation, and self-transcendence of the pastor for the service of God's people without threatening or compromising in the professional helping relationship.

**Key words** : countertransference, spirituality, transference, fantasy, self-transcendence